

광주 유망기업 제품 ‘한 자리에’... 신기술 ‘눈길’

광주상의, 지역기업 BtoB 간담회 디케이㈜ 등 10개 기업 제품 소개 비즈니스 모델 제작 등 지원받아 “지역 생산 제품·신기술 판로 확대”

“사업이 계속 확장되는 것과 별개로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낸 우수한 제품들이 광주·전남지역보다 타 지역으로 많이 판매되고 발주되는 부분이 항상 큰 아쉬움이었는데, 이렇게 지역 기관·기업들에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감사합니다.”

광주지역 유망기업들의 신제품 및 신기술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19일 오전 10시께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광주 유망기업 제품 BtoB 홍보간담회’에서는 지역 유망기업 10개사 관계자 및 유관기관, 언론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함께 우리 지역 기업들의 혁신 제품과 다양한 기술력을 공유했다.

이날 홍보간담회는 광주시와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 ‘미래 신산업 전환 맞춤형 지원사업’의



19일 ‘광주 유망기업 제품 BtoB 홍보간담회’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씨엔에스컴퍼니의 산업용 보안경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총 10개 기업 중 디케이㈜, ㈜씨엔에스컴퍼니, ㈜메디덴, 뉴몰드㈜, 씨니팩토리, ㈜라라랩스, ㈜올더타임 등 7개 기업 관계자가 직접 연단에서 자사 제품과 신기술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0개 유망기업 중 6개 기업이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제품

과 다양한 기술력을 선보이며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스마트건물 정보와 AI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고 에너지 소비의 이상 발생을 조기에 파악하는 지능형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을 개발한 씨니팩토리의 경우 플랫폼 구현의 핵심인 AI 로봇에 대한 개발과 고도화 모델에 대한 추

가 개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또 AI 기반의 우울증 분석 및 증상개선 플랫폼을 개발한 ㈜라라랩스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서 활용되는 음성·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의 우울증 정도를 파악하고 결과에 맞는 음악과 비약물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 드러내기 힘든 질병인 우울증을 사용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외에도 산업용 보안경을 주력 생산하고 있는 ㈜씨엔에스컴퍼니, 자동차 램프나 공조조절장치, 가니시 등에 적용되는 이중사출금형을 생산하는 뉴몰드㈜ 등이 현장에서 제품에 대한 실제 체험과 시연을 진행하며 기술력과 혁신성을 입증해 보였다.

뉴몰드㈜ 관계자는 “현재 뉴몰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들은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이 더 많은데 특히 저희가 생산하고 자동차 부품 중에 광주지역 기업으로 납품되는 하나도 없다”며 “이런 기회가 많이 마련돼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납품되고

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유망기업 10개사를 포함한 40개 기업이 미래 신산업 전환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비즈니스모델 수립, 피보팅 사업전환,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받은 바 있다.

광주상의는 유망기업의 제품 및 신기술 홍보를 통한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을 기대하는 동시에 지역기업의 미래 신산업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사업과 참여기업을 다수 연계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채화석 광주상공회의소 전무이사는 “광주상의는 고금리, 고물가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유망기업들의 제품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홍보 간담회를 통해 지역 유망기업들이 BtoB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 유망기업에 신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크리스마스 파티에 어울리는 와인 만나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주류매장에서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다양한 와인 특가 행사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가볍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스파클링 와인 ‘빌라렘 썸(750ml, 이탈리아)’과 샴페인 ‘보브클리코 옐로우라벨(750ml, 프랑스)’을 비롯해 레드와인인 ‘브래드 앤 버터 카버네 소비뇽(750ml, 미국)’ 등을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경총-광주대, 지역인재 양성 힘 모은다

미래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뿌리산업 고용창출·산학 협력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8일 광주대학교와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총과 광주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인력 역외유출 등을 예방하고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기업을 발굴, 일경험을 제공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등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주대학교는 △실무형 지역인재 육성 △채용연계 인턴십과 현장실습 지원 △기업별 맞춤 교육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연구 및 협력사업을 진행하며 광주경총은 회원사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기업 발굴 △취업정보 제공 △취업지원 및 취업알선 △참여기업 채용 및 교육훈련 수요파악



지난 18일 광주대 행정관 회의실에서 양진석(오른쪽)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동진 광주대학교 총장이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경총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김동진 광주대 총장은 “우리 지역은 여전히 제조 기반의 산업이 중심인 만큼 내년도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산업

부문으로 확대해 기업 실무 인재를 양성 하려고 한다”며 “대표적으로 광주시와 함께 독일 지멘스와 협력하는 등 일반 생산 공장에서의 디지털 공정 전환에 따른 체험, 훈련, 지원 등을 통해 뿌리산업 디지털 엔지니어링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올해 광주시와 경총이 빛그린국가산단 배후단지 100만평 국가산단 추가 지정 및 미래형 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 성과를 거둔 만큼 광주·전남지역의 자동차산업과 뿌리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업이 확대되고 기업이 증가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기업에 맞는 인재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광주대와 경총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 광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중기중앙회 ‘중기 맞춤형 ESG 경영 툴킷’ 제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정보공개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맞춤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 맞춤형 ESG 경영 툴킷’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ESG 가이드 △규정제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ESG 경영 툴킷’을 국내 최초로 제작해 ‘중소기업 업종 맞춤형 ESG 경영 실천과 정보공개·공시’를 지원한다.

‘업종별 ESG 가이드’는 전국적으로 조직화해 있는 900여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네트워크와 협력해 업종별 우선순위 관리 이슈·지표를 선별·수색했으며, 실천사례, 체크리스트와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툴(Tool)을 함께 제공해 현장에서 바

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SG 규정제’는 중소기업 ESG경영 실천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는 환경경영·오염물질관리 규정, 안전보건관리 지침 등 ‘ESG 요소별 필수 규정 예시 10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에서는 중소기업이 보고하기 적합한 주제와 지표를 선별하고 상세한 보고 지침과 사례·양식을 함께 수록해 중소기업이 ESG 경영현황을 손쉽게 관리·공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중소기업 ESG 경영 툴킷’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등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80호점 선정

올해 13개소 개보수 지원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한빛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80호점 선정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80호점으로 선정된 한빛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들에게 방과 후 학습지도 및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미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시설로서 현재 20여명의 아동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광주은행은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해 한빛지역아동센터의 노후화된 반지하 공

간 개보수 및 체형 공간 조성, 책상과 의자, 탁구대 설치, 학습용품 등을 제공하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지난 6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약을 통해 노후화된 광주·전남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개선하고, 대학생 고용 연계 통한 취약계층 초·중·고생들의 방과 후 학습 돌봄 지도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올해 한해에만 1억원의 금액을 들여 총 13개소의 노후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을 개보수 지원했으며, 고용 연계 등을 통해 선발된 30여명의 취약계층 대학생들로 구성된 ‘희망이 꽃피

는 봉사단’은 장학금 수혜를 받고 방과후 학습지도교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아동센터에 인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봉사정신과 대외활동 경험을 쌓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광주은행은 2015년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과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 (재)광주은행장학회를 통해 4600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9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